

문화

한국여성문학학회 심포지엄 및 창립총회



한국여성문학학회 창립

서울창무극단 뮤지컬
<광개토대왕>

어려운 시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이희호의 “내일을 위한 기도”>

“당신이 좋아하시는 개나리꽃이 만발하였습니
다. 기어이 봄은 온 것입니다. 봄은 언제나 희망을
상징해주기 때문에 마음속에 희망이 더 강하게 솟
아나는 느낌입니다. 되도록 부정적이고 실의에 빠
지는 생각은 없기로 마음을 정하고 범사에 감사하
면서 나날을 보냅니다.”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옥중의 김대중 대통
령에게 보낸 편지글이 단행본 <내일을 위한 기도>
(도서출판 여성신문, 9천5백원)로 출간됐다.

IMF 구제금융 이후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
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로 생활터전을 송두리
째 잃은 사람도 생겨났다. 결식 아동은 이미 12만명
을 넘어섰다는 보도, 생활고 때문에 깨어지는 가정
의 이야기는 가슴 한켠을 무겁게 짓누른다.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
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은 하나의 제안을 하게되었는데, 다
름 아닌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 선생에게 보낸 이
희호 여사의 편지묵을 책으로 엮어내는 일이었
다. 희망을 잃지 않고 남편의 출옥을 기도하는 마음
으로 기다렸던 이희호 여사의 절절한 편지는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커다란 감동과 희망의 메시
지를 전한다.

1980년,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언
제 형이 집행될지도 모를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여사는 남편의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거의 매일



편지를 써서 보냈다. <내일을 위한 기도>에 실린
편지는 1980년 11월 21일부터 1981년 12월 31일
까지 보낸 것으로, 3백여 통에 달한다. 원문 그대로
실려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전에도 여러가지로 고난을 겪
었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는 사형선고를 받은 때인
1980년이였다. 이해 9월 11일 사형 구형, 이어 같은
달 17일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 여사가 영어의 몸이
된 남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11월 21일은 바로
대법원 최종판결을 목전에 두고 있던 때였다.

편지 속에는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는 아내로서의
애뜻한 마음, 가족들의 안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들, 남편이 사랑했던 애견과 화초 이야기, 대학
입시를 앞둔 막내의 심리상태, 그리고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정세들, 여러 가지 읽을 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내용이 매우 솔직하면서도 깊이가 있어 이 여사
의 인간적 면모와 철학적 사유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 여사의 희망을 잃지 않는 정신력과 인
간에 대한 끝없는 애정이 김 대통령 부부가 당시의
고난을 극복하는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1981년
10월 26일의 편지를 엮보자.

‘존경하는 당신에게.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보다
불행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많이 눈에 띄
니다. 날씨 관계로 쭈그리고 앉아서 장사하는 바구
니 군상들이 웬지 너무도 가엾어 보입니다. 값도 싸
지만 기능하면 불쌍한 사람들의 물건을 사기 위해
일부러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내 마음은 이 모든 과
정에서 가슴이 아파 도울 길 없는 무능을 한탄하면
서 하느님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소서 마음속으
로 기도를 올립니다. 이들은 가난하지만 친절하고
도 다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집의 스팅가 잎이 누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날이 차지니까 아
무래도 지장이 있나 봅니다. 뽕뽕이는 여전히 하고 흥업
이가 아무리 귀여워하고 먹을 것을 주어도 전과 같이
가지고 노니가 부르면 숨어버려요. 몸 건강하세요.’

<내일을 위한 기도>는 현재 영문판 출간을 진행
중이며, 책의 인세는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을 통
해 전액 불우이웃을 위해 쓰인다.

또 지난 14일 63빌딩에서 가진 출판기념회의 수
익금 역시 전액 ‘사랑의 친구들’에 건네져 ‘사랑의
떡국 나누기’에 쓰인다. <최이 부자 기자>

의 방송평을 참고하여 총 7개 작품을 선정했다.

전체 대상작은 없고, 환경부문 으뜸상으로 SBS
<환경특집 스페셜> ‘불가사리의 반란’, 버금상에
MBC <시사매거진 2580> ‘위기, 비경의 동강’·
KBS창원방송총국 ‘우포늪을 지킵시다’가 각각 수
상했다.

또 평화부문 으뜸상은 KBS <개혁리포트> ‘책임
지지 않는 권력, 언론-제2편 신문’에게 돌아갔고,
버금상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국군포로 장
무환-50일간의 북한 탈출기’·인청방송 <청소년
특집 다큐> 내일은 태양이 차지했다.

여성부문에선 으뜸상 해당작이 없고, 버금상에
MBC <PD수첩> ‘벼랑에 선 여자들’이 단독 수상
했다. 시상식은 지난 9일 대한YWCA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제3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 시상식



여성부문 으뜸상 없어

대한YWCA연합회는 공중과 방송(지역방송 포
함)을 통해 98년에 방영된 환경·평화·여성 관련
주제의 TV 프로그램을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을 선정했다.

11월 10일로 마감된 추천에는 총 2백64명이 참가
하여 1백2편의 작품(환경 24편, 평화 67편, 여성
11편)이 올랐다. 이를 정부기관, 시민단체, 여성단
체, 언론사, 54개 지방 YWCA 등에 추천을 의뢰
하고, 일반시민들의 추천과 PC통신, 신문 잡지 등

옥선희의 비디오 파일



제이다 핀켓의 우

뉴욕의 오피스 걸 우(제이다 핀켓 스미스)는 단
골 점성술사의 부름을 받고 바빠 걷는다. 즉흥적이
고 멋진 남자와 폭발적인 사랑을 나누게 될 거라는
좋은 점괘가 나왔다는 것. 근사한 점괘와는 달리
함께 사는 사촌 플로데트가 남자 친구 레니와 오붓
한 데이트를 위해 집을 비워줄 것을 은근히 강요하
는 게 아닌가. 심술이 난 우에게 레니는 자신의 친
구인 팀 잭슨(토미 데이비슨)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라고 부추긴다. 할일 없이 TV를 보며 여기저기
여자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데이트 신청을 하다
체인 팀은 어떤 여자가 찾아올까 기대에 부른다.

젊은 흑인 감독 데이비 V.S. 메이어가 만든 흑
인 청춘 남녀의 티격태격 하룻밤 데이트는 그다지
신선하지 않지만 그들의 풍속도를 읽는 재미가 쏠
쏠하다. 특히 요란하게 장식한 트랙 쿨(여장남자)
점성술사에게 의존하는 젊은이들이나 트랙 쿨들만
의 바에서의 소동 등 성정체성의 경계가 모호해지
는 뉴욕 밤거리 풍경은 아주 재미있다. 동성애를
몹쓸 병으로 여기는 분들이 아니라면 너그럽게 보
아줄 수 있는 대목들이다.

비디오 칼럼니스트, <으뜸과 버금>홍보부장